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제34대(2014년) 회장 장효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2023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973년 설립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미생물 및 생명공학 분야에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해 왔다. 반백년의 세월을 지내왔더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이에 본인이 간사장과 학회 회장을 했던 때가 엇그제같이 생생하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 힘들었지만 보람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2005년 이철호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본인은 간사장직을 수행하며 고려대학교에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Microorganism and Human Well-being”이었으며 이 당시 여러 간사님들과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당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하게 되었다. Banquet 시간에 맥주 파티를 하여야 했는데 고려대 재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고대 내에서 그것도 인촌 기념관에서 맥주 파티를 하는 것은 불허하였다. 본인은 이 행사가 미생물 생명공학회의 국제 심포지엄으로서 세계 석학들과 국내 유명 과학자들이 참석하는 세계적 학회이기에 이 분야에 대한 고대의 관심과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고대 재단과 관계자들을 어렵사리 설득하여 겨우 맥주 파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일은 고려대에서도 당시까지는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또한 이철호 회장님의 노력으로 술 심포지엄과 전시 품평회를 열게 되었고, 제1회 장류 국제포럼을 개최했던 것도 보람된 학회 활동으로 기억된다.

2014년에는 본인이 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부산 BEXCO에서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 from Traditional to Cutting Edge”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 및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교수님과 간사장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학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때 학회 후 평원위원회를 부산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 식당에서 하면서 학회의 앞날에 대해 논의도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던 일들이 바쁜 학회 일정 중이었지만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

지나간 일들이지만 본인이 경험 한 위의 몇몇 일들도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미생물 생명공학회 역사의 한 페이지들로 되새겨 볼 수 있는바, 이 자리를 빌려 당시 함께 하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간사님들이 하 모든 교수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미래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 과학 및 기술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새로운 최첨단의 연구와 발전들에 자리를 내주는 초고속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논리, 학문, 철학과 가치 등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우리 학회도 변화해가는 학문의 방향과 방법 및 산업과의 연계성 등에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학회가 앞으로도 학문과 바이오 분야, 산업 분야 등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으로도 더욱 위상을 높이는 학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많은 학회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